

타동성 관점으로 본 근대중국어 과거의미 是……的형식의 ‘的’

- 《수호전》, 《서유기》, 《홍루몽》을 중심으로 -

김선희*

◁ 목 차 ▷

- I. 서 론
 - II. 광의의 타동성 이론
 - III. 근대중국어 과거의미 是……的 3가지 형식 타동성 특징 분석
 - IV. 근대중국어 과거의미 是……的 3가지 형식 타동성高低 비교
 - V. 결 론
-

I. 서 론

담화 중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과 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으로 화자의 담화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을 전경(前景: foregrounding)이라 하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부분이며 주로 사건의 장면을 표현하고, 세부사항을 풍부하게 하고, 평론하거나, 돋보이게 하는 부분을 배경(後景: backgrounding)이라고 한다. 화자는 언어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담화 목적과 청자의 필요에 근거하여 담화 중 전경정보와 배경정보를 적절히 배분한다.

전경, 배경부분의 정보내용이 결정되면 화자는 적절한 문장형식을 선택하여 전경, 배경부분을 말하게 된다. 전경부분은 타동성이 높은 문장형식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고, 배경부분은 타동성이 낮은 문장형식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¹⁾ 이와 같이 배경성(grounding)²⁾과 타동성(transitivity)은 밀접한 관계가 있

* 漢拏大學校 貿易通商學科 講師

1) Paul J. Hopper and Sandra A. Thompson Transitivity in grammar and discourse[J] Language Vol. 56, No. 2, 1980, 294쪽.

다.

전경정보를 초점화하기 위해 時相범주가 생성된 것은 범언어적 현상이다. 전경부분은 時相표지가 사용될 수 있고 타동성이 높다. 반면 배경문장은 타동성이 낮고, 사건발전의 시간적 연관성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時相표지가 사용되지 않으며, 관련 전경문장을 참조점으로 하여 전경문장에 장면 또는 세부사항을 제공한다고 한다.³⁾

배경성과 타동성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타동성의 高低를 분석 할 수 있다면 과거의미 是……的 형식에서 과거의미와 관련된 성분인 ‘的’의 성질을 설명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만일 과거의미 是……的 형식의 타동성이 높다면 주로 전경부분을 표현하는 형식이다. 전경문장에는 時相표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的’는 時相표지일 수도 있다. 타동성이 낮다면 과거의미 是……的 형식은 주로 배경부분⁴⁾을 표현하는 형식이다. 배경문장에는 時相표지가 쓰일 수 없기 때문에 ‘的’는 時相표지 일 수 없다.

본고는 근대중국어 《수호전》, 《서유기》, 《홍루몽》⁵⁾에 표현된 총371개 과거의미 是……的 문장을 3가지 형식으로 분류하고 각 형식의 타동성高低를 분석하여, 담화에서 전경과 배경의 어느 부분에 출현하는지 그 경향성을 설명하고 ‘的’의 성질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2) 전경, 배경과 관계된 언어특징을 배경성이라고 한다. 타동성은 광의의 타동성을 의미한다: Hopper & Thompson(1980) 280쪽.

3) Hopper & Thompson(1980) 251-299쪽.

4) 낮은 타동성 문장은 일반적으로 전경부분을 표현할 수 없다. 그러나 낮은 타동성 문장이 전경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비율은 매우 낮고, 그것도 중등정도의 타동성 문장만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것으로 타동성이 높은 문장만 전경부분을 표현하고 타동성이 낮거나 중등 정도이면 배경부분을 주로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王惠 〈從及物性系統看現代漢語的句式〉《語言學論叢·第19輯》(北京, 商務印書館, 1997) 246쪽 참조.

5) 과거의미 是……的 형식은 근대중국어에서 생성(劉敏芝(2008), 韓昱(2011))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구어체에 많이 쓰이는 형식이기 때문에 구어체로 쓰인 소설을 선택하였다.

II. 광의의 타동성이론

타동성이란 전통어법에서는 동사가 빈어를 취하는 어법특징이었다. 동사가 빈어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타동사, 자동사로 분류하였다. 즉 타동성을 동사의 특징으로 판단하였다. 동사의 타동성과 문장의 타동성을 동일시하여 타동사가 있는 문장을 타동성 문장으로, 자동사가 있는 문장은 자동성 문장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실제 언어현상에는 자동사가 빈어를 취하는 ‘跑鋼材’, ‘走臺步’ 등과 같은 용법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타동성 연구는 동사층위가 아닌 문장층위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형식적인 면만을 고려하여 문장의 타동성을 판단한다면 동사 뒤에 명사성분을 취하는 ‘王冕死了父親。他吃了我的蘋果。’ 이 두 문장은 모두 타동성 문장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전자는 동사 뒤 명사성분을 취했지만 타동성 문장이 아니다. 그러므로 문장의 타동성은 형식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형식과 각 문장성분간의 동태적 의미관계를 함께 고려하여야만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Hopper & Thompson(1980)이 제기한 광의의 타동성 이론은 타동성을 문장 전체의 특징으로 서술한다. 타동성은 동작이 그 참여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정도를 의미하며 동사가 빈어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문장의 여러 타동성 특징 중의 하나라고 서술한다. 문장의 타동성을 측정 할 수 있는 10가지 매개변수와 특징⁶⁾을 나열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타동성 측정 매개변수와 타동성高低

타동성 측정 매개변수	타동성 高	타동성 低
A. 참여자(participants)	둘 또는 여러 참여자, 施事와 빈어	하나의 참여자
B. 동작성(kinesis)	동작	비동작(상태)
C. 相(aspect)	완성(telic)	비완성(atelic)
D. 순간성(punctuality)	순간성	비순간성
E. 의지성(volitionality)	의지적	비의지적
F. 긍정(affirmation)	긍정	부정
G. 서법(mode)	현실	비현실
H. 施事性(agency)	高	低
I. 빈어가 영향을 받는 정도 (affectedness of O)	완전히 영향을 받음	영향을 받지 않음

6) Hopper & Thompson(1980) 252쪽.

J. 빈어의 개체성 (individuation of O)	高	低
------------------------------------	---	---

상술한 10가지 매개변수는 의미, 통사적 특징이기 때문에 이 매개변수들을 기준으로 문장을 분석 한다면 비교적 객관적으로 타동성高低를 관찰할 수 있다. 문장의 타동성은 상대적 개념으로 타동성의 유무뿐 아니라 그 강약의 차이도 있다. 만족하는 높은 타동성 특징이 많을수록 그 문장의 타동성은 높고, 만족하는 높은 타동성 특징이 적을수록 그 문장의 타동성은 낮다.

광의의 타동성 이론은 형태표지가 발달되어 있는 굴절어를 기초로 하였지만 王惠(1997)⁷⁾는 이 개념을 중국어에 적용하여 중국어 역시 타동성이 높은 문장은 전경 부분에 표현되고 타동성이 높지 않은 문장은 배경부분에 표현되는 강한 경향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므로 광의의 타동성 이론을 근거로 과거의미 是……的 문장의 타동성高低를 분석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타동성高低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절대 값이 있는 것일까? Hopper & Thompson(1980)⁸⁾에서 타동성高低를 구체적 수치로 나타내었다. 높은 타동성 특징이 전경문장과 배경문장에 나타나는 평균비율을 계산하였는데, 전경문장은 78%이며, 배경문장은 39%라고 하였다. 본고는 이 수치를 근거로 하여 문장에서 높은 타동성 특징이 나타나는 평균비율이 78% 이상이면 타동성이 높고, 39% 이하이면 타동성이 낮다고 판단한다.

Ⅲ. 근대중국어 과거의미 是……的 3가지 형식 타동성 특징 분석

Hopper & Thompson(1980)에서 제시한 10가지 타동성 매개변수와 그 특징(표1)을 근거로 근대중국어 《수호전》, 《서유기》, 《홍루몽》에서 표현된 총 371개 과

7) 이외에 광의의 타동성 이론을 이용하여 중국어를 분석한 논문은 屈承熹(1998), 唐翠國(2005) 등이 있다.

8) 타동성高低의 절대값과 그 계산법 : Hopper & Thompson(1980) 288쪽 참조.

거의미 是……的문장의 타동성 특징을 분석한다. 문장에서 높은 타동성 특징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전형적인지 비전형적인지, 명확히 판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전형적인 것, 명확히 판별 할 수 있는 것만을 그 타동성 특징이 있다고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문장 속 ‘참여자’의 개수를 분류할 때 사람은 전형적 施事⁹⁾이며, 단체, 기관은 상대적으로 비전형적 施事¹⁰⁾이므로 전형적 施事인 사람은 참여자에 포함시키지만 단체, 기관은 참여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엄격한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은 중국어는 형태표지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으로 분류하기 위해서이다. 총371개 근대중국어 과거의미 是……的문장을 3가지 형식으로 분류하고, 3가지 형식의 타동성高低를 분석하였다. 3가지 형식은 다음과 같은 문장을 포함 한다: 受事가 문두에 위치하는 형식(총193개) ‘O是SV的’; 施事가 문두에 위치하는 형식 3종류(총91개) ‘S是AV(O)的’, ‘S是AV的O’, ‘S是V的O’형식; ‘是’가 문두에 위치하는 형식 2종류(총87개) ‘是SV(O)的’, ‘是SV的O’형식. O, S, A, V는 의미상의 표시방법이며 문장성분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O는 주요동사 V의 受事이며, S는 주요동사 V의 施事이다. A는 부사어로 시간, 조건, 원인, 목적 등을 의미한다. 서술의 편이를 위해 이하 문장에서 受事가 문두에 위치하는 형식은 A 형식, 施事가 문두에 위치하는 형식은 B 형식, ‘是’가 문두에 위치하는 형식은 C 형식으로 표기한다.

1. 참여자(participants)

참여자는 문장 중의 施事(S)와 빈어(O)¹¹⁾를 의미한다. 빈어는 전형적 타동관

- 9) Hopper & Thompson(1980) 264, 286쪽 참조: ‘의지성’ 매개변수를 서술하면서 施事가 의도적으로 행한 동작이 受事に 주는 영향이 더 분명하며, 의지성이 있는 주체는 반드시 사람이며, 적어도 동물이여야 한다고 하였다. 본고는 이를 근거로 전형적 施事を 사람과 동물로 한다.
- 10) 陳平 〈試論漢語中三種句子成分與語義成分的配位原則〉《中國語文》1994年第3期 162-163쪽: 전형적 施事は 다음 5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①자주성(自主性) ②감지성(感知性) ③사동성(使動性) ④이동성(移動性) ⑤자립성(自立性) 전형적 施事인 사람, 동물은 이 5가지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으나, 단체, 기관은 환유적으로 施事が 될 수 있지만 상기한 5가지 중 ②④를 제외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 施事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계에서 행위를 받는 受事를 의미한다. 《서유기》에서 손오공을 비롯한 동물과 요괴들이 의인화되어 묘사되었기 때문에 본고는 사람뿐 아니라 의인화 된 동물, 요괴 역시 목적성 있는 동작을 행하는 전형적 施事¹²⁾로 분류한다. 타동성이란 술어가 어떤 행위자로 시작하여 다른 개체로 넘어가 영향을 끼치는 행위이다. 최소한 2개의 참여자가 있어야만 동작이 전달될 수 있다. 참여자가 2개이면 타동성이 높고, 1개이면 타동성이 낮다.

다음은 참여자가 2개인 예이다.

(1) …八戒把九環錫杖遞與唐僧道：“師父，你橫此在馬上。” 行者道：“這呆子奸詐！錫杖原是你挑的，如何又叫師父拿着？”(《西游記·第48回》)

(팔계가 구환석장을 삼장에게 주면서 “사부님, 이 석장을 말 위에서 가로로 들고 가십쇼.”라고 하자, (손)행자는 “이 멧덩구리는 간사하군! 석장은 원래 내가 뺏는데, 왜 사부님께 들고 가지게 하는 거냐?” 라고 하였다.)

(2) 對那婦人說道：“我昨夜夢見神人怪我，說有舊願不曾還得。向日許下東門外岳廟裏那炷香願，未曾還得。……楊雄道：“這心願是當初說親時許下的，必須要和你同去。”(《水滸傳·第46回》)

(그 부인에게 말하였다. “어제 밤 꿈에 신령이 나를 나무라셨소. 내가 예전에 약속한 기원을 드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던 군요. 예전에 동문 밖 악묘에 분향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 향을 피워 올리지 못했소. ……양웅이 말하였다. “이 약속은 우리 혼삿말이 있을 때 한 것이니 반드시 당신과 같이 가야 하오.”)

(1)의 빈어와 施事는 차례로 ‘錫杖’, ‘你’; (2) 빈어는 ‘這心願’, 施事는 생략되었지만 화자인 ‘我’임을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2개의 참여자로 분류한다.

다음은 참여자가 1개인 예문이다.

11) 施事는 의미역이고 빈어는 문장성분으로 통일되지 않은 명칭이지만 Hopper & Thompson (1980)을 인용하였다.: Hopper & Thompson(1980) 252쪽 각주 참조 표1의 타동성 측정 매개변수 I, J 와의 명칭을 통일하기 위해 受事로 표기하지 않았다. S와 O는 본고 과거의미 是……의문장 형식을 분류할 때 표기한 기호이다

12) 陳平(1994) 162-163쪽: 전형적 施事는 ①자주성(自主性) ②감지성(感知性) ③사동성(使動性) ④이동성(移動性) ⑤자립성(自立性)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 의인화된 동물과 요괴는 이 5가지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 施事라고 할 수 있다.

(3) 賈璉道：“如今的人情過於淡薄。老爺呢，又丁憂：我們老爺呢，又在外頭，一時借是借不出來的了。只好拿房地文書出去押去。” 賈政道：“住的房子是官蓋的，那裏動得。”(《紅樓夢·第116回》)

(가련은 “요새 인심은 너무 각박합니다. 숙부님께서서는 상중이시고, 아버님은 또 밖에 계시니, 임시로 빌리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집이나 토지문서를 잡히는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자, 가정은 “살고 있는 집은 관가에서 지었는데, 어떻게 손을 대겠느냐?” 고 하였다.)

(4) “……早被他閃過，雙手舉個滿堂紅，把我戰敗。我又飛刀砍去，他又把刀接了，摔下滿堂紅，把我後腿上着了一下，故此鑽在御水河，逃得性命。腿上青是他滿堂紅打的。”(《西遊記·第30回》)

(“……번개처럼 몸을 피하더니 두 손으로 촛대를 잡고 나를 막아냈어요. 내가 또 칼을 날려 베려 했는데 그 놈은 또 칼을 받아내더니 촛대를 나에게 던져 나는 허벅지에 부상을 입은 채 어수하 속으로 뛰어들어 목숨을 건지게 된 거예요. 허벅지가 멍든 것은 그 놈이 촛대로 때렸기 때문이에요.”)

(3)의 빈어는 ‘房子’, 施事は ‘官’이라고 할 수 있으나, 본고는 사람과 의인화 된 동물, 요괴를 전형적인 施事로 분류한다. 그러므로 기관인 ‘官’은 전형적 施事が 아니기 때문에, (3)의 참여자는 빈어인 ‘房子’ 1개만 있는 문장으로 분류한다.; (4)의 빈어 ‘腿上青’은 명사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형적 施事が 아니다. 이 예문의 참여자는 施事 ‘他’ 1개이다.

참여자 매개변수를 기준으로 예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2. 참여자 매개변수 기준으로 3가지 형식 비교

참여자	타동성 高		타동성 低	
	2개		1개	
受事が 문두에 위치하는 형식	163개	84.5%	30개	15.5%
施事が 문두에 위치하는 형식	16개	17.6%	75개	82.4%
‘是’가 문두에 위치하는 형식	29개	33.3%	58개	66.7%

2. 동작성(kinesis)

동태(dynamic) 동사만이 하나의 참여자가 다른 참여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

며 상태(state)는 영향을 줄 수 없다. 본고의 근대중국어 과거의미 是……的문장은 모두 동태동사¹³⁾가 사용되었다.

(5) 一面說，一面真個走來，揭起茶箱一看，只見裏面果有十來個鷄蛋，說道：“這不是？你就這麼利害！吃的是主子的，我們的分例，你爲甚麼心疼？又不是你下的蛋，怕人吃了。”(《紅樓夢·第61回》)

(말하면서 정말로 걸어와 야채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과연 십 여 개의 계란이 보이니 말하기를 “이건 뭐예요? 아주머니 참 대단하시네요! (우리가)먹는 것은 주인의 것이고, 우리의 몫인데 아주머니는 왜 아까워하세요? 아주머니가 낳은 알도 아닌데 남이 먹을까 봐 별별 떠세요.”)

(6) 王夫人見賈政不自在了，便替寶玉掩飾道：“是老太太起的”。賈政道：“老太太如何知道這話，一定是寶玉。”(《紅樓夢·第23回》)

(왕부인은 가정이 언짢아하는 것을 보고 보옥 대신 숨기려고 “할머니께서 지으신 이름이에요.” 라고 하자, 가정은 “할머니께서 어떻게 그러한 말을 아시겠어, 분명히 보옥이 지었을 거야.” 라고 하였다.)

13) 김선희 〈명대 是……的형식 과거의미 분석 -수호전, 서유기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제91호, 2015.4, 179-182쪽 참조: 명대소설 《수호전》, 《서유기》에서 쓰인 과거의미 是……的형식의 동사를 분류하고, 是……的형식이 과거의미를 표현하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본고의 동사 분류 기준은 김선희(2015)를 인용한다. 동사 분류를 표로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사 종류		형태기준							의미 기준		예	
		了 (I)	時量 (I)	着	正在 / 在	過	了 (F)	時量 (F)	동태	종결		
상태동사	Va											是
	Vb	+	+									認識
	Vc1	+	+			+				-	-	相信
	Vc2	+	+	+		+						信任
	Vc3	+	+	+		+	+					病
활동 동사	강지속 Vc4	+	+	+	+	+	+			+	-	等
	약지속 Vc5	+	+	+	+	+	+	+				看
성취동사	Vd1			+	+	+	+	+				改
	Vd2				+	+	+	+		+	+	裁
	Ve					+	+	+				死

(5)의 下(동물이 생산하다)는 각주13)의 동사분류표에 의하면 VC5에 속하는 동사이며, (6)의 起(이름을 짓다)는 VC4에 속하는 동사로 모두 동태동사이다. 총 371개의 예문에 쓰인 동사는 모두 활동, 성취동사(VC4~Ve)에 속하는 동사이다.

《수호전》, 《서유기》, 《홍루몽》의 과거의미 是……的문장에 사용된 동사는 다음과 같다.

강지속동사(Vc4)

看(돌보다), 請, 鑽, 長(성장하다), 巡探, 使(사용하다), 鬧, 引, 救, 唬, 騎, 騙, 用, 耍子, 吹, 害, 央, 傳授, 央浼, 冲撞, 雕刻, 干, 見(만나다), 流, 描, 鬧, 擬, 念, 拈, 取笑, 使喚, 修造, 尋, 選, 制造, 帶, 治, 找, 造作, 起(이름 짓다), 避靜, 納涼, 揀, 弄(만들다), 編纂, 求, 伏侍, 逼, 生

약지속동사(Vc5)

教, 制造, 做(만들다), 說, 揭, 造(만들다), 生, 關, 放(놓다), 打, 送(물건을 보내다), 供養, 咒, 出, 穿, 化, 偷, 捏, 打造, 拿(잡아가다), 偷, 收, 解(보내다), 寫, 鑿, 買, 刮, 修, 吃, 換, 賣, 伏侍, 獻, 勾, 拿捉, 穿戴, 筑, 降, 撞, 裁, 掉, 盖, 接, 進攻, 拿(들다), 吐, 耍, 砸, 摘, 織, 作, 賺, 洗, 弄(구해 오다), 過(지나다), 拾, 要請, 燒, 作, 做媒,

성취동사(Vd1, Vd2, Ve)

(Vd1) 許(소원을 빌다), 改, 支使

(Vd2) 撩撥, 斬, 起(설립하다), 賞, 報仇, 出力, 使(보내다), 畱

(Ve) 變, 與, 賜, 來, 拐, 救命, 差, 得, 走, 出, 出家, 撥, 背反, 賜, 打傷, 養(날다), 送(선물하다), 打發, 放(말기다), 給, 留, 派, 孝敬, 死, 藥, 丟, 氣, 沒, 失落, 取, 許(동의하다), 央及

동작성 매개변수를 기준으로 예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3. 동작성 매개변수 기준으로 3가지 형식 비교

동작성	타동성 高		타동성 低	
	동태		정태	
受事가 문두에 위치하는 형식	193개	100%	0개	0%
施事가 문두에 위치하는 형식	91개	100%	0개	0%
‘是’가 문두에 위치하는 형식	87개	100%	0개	0%

3. 相(aspect)

[+종결(telic)]의 有界동작이 [-종결(atelic)]의 無界동작보다 더 효과적으로 受事に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¹⁴⁾ 김선희(2015)는 A 형식은 모두 [+종결] 특징이 있고, B 형식과 C 형식은 항상 [+종결] 특징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서술하였다.

沈家煊(2002)¹⁵⁾에서 동작은 有界, 無界의 구분이 있고 有界동작은 동사의 시간구조에서 시작점과 종결점이 있으며, 無界동작은 시작점과 종결점이 없거나 시작점은 있으나 종결점이 없다고 설명한다. 여기의 有界동작은 동사층위가 아닌 동보구조, 동빈구조, 동사+了 등을 포함한 단위이며 이 단위에서의 종결점을 자연종결점이라고 하였다. 즉 통사층위의 종결점을 의미한다. 그러나 성취(achievement)동사¹⁶⁾는 내부 시간구조에 종결점이 있기 때문에 본고의 有界동작은 통사층위뿐 아니라 성취동사도 포함한다. 다음은 본고의 통사층위에서 [+종결] 특징의 판단 기준이다.

- a) 동사+빈어(빈어는 이동된 장소 또는 수여대상)
예) 盛碗裏(兩條魚), 送學校(一幅油畫)
- b) 동사+결과보어 또는 방향보어 예) 打破(兩塊玻璃), 飛進來(一個蒼蠅)¹⁷⁾
- c) 동사+受事빈어¹⁸⁾ 예) 盖房子

14) Hopper & Thompson(1980) 252쪽.

15) 沈家煊 〈有界与無界〉《著名中年語言學家自選集 沈家煊卷》(合肥, 安徽教育出版社, 2002) 170쪽 참고.

16) 김선희(2015) 동사의 '了'와 '時量빈어'와의 결합으로 동사층위의 [+종결] 특징을 검증하였다.

17) a)b) 沈家煊(2002)163-164쪽 有界구조 참조.

18) Smith, C. S. *The Parameter of Aspect*(Second Edition) Dordrecht Boston Lond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7, 19쪽: [+종결] 사건이란 상태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상태의 변화란 그 사건의 결과가 생기거나 혹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즉 그 사건의 목표를 달성하여 어떤 상태의 변화가 나타나고 해당사건이 완성 된다는 것이다. 張雲秋 〈動詞對受事賓語典型性强弱的制約〉: 《學習漢語》2005年 第3期 44-49 참조: 전형적 受事빈어를 動事, 結果, 致使빈어 3가지로 분류하였고 전형적 受事빈어의 가장 큰 특징은 변화성이라고 하였다. 結果빈어란 동사의 영향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사물이나 말, 상황이 생성된 객체를 의미하는 빈어이다. 동사의 영향 하에 상태의 변화 또는 속성의 변화과정을 거치는 빈어를 각기 動事빈어와

(7) 王夫人吃驚道：“我沒有聽見，老爺昨晚也沒有說起。到底在那裏聽見的？”
 鳳姐道：“說是在樞密張老爺家聽見的。”王夫人怔了半天，那眼泪早流下來了。(《紅樓夢·第96回》)
 (왕부인이 놀라며 말했다. “나는 듣지 못했어, 대감께서도 어제 저녁 말씀이 없으셨는데 도대체 어디서 들었는데?” 희봉이 말하였다. “추밀원의 장씨댁에서 들었다고 해요.” 왕부인은 말없이 멍하니 눈물만 흘렸다.)

(8) 貧僧是東土大唐駕下差來的，前往天竺國大雷音寺拜佛祖取經的。(《西遊記·第91回》)
 (소승은 동녘 땅 대 당나라 황제께서 파견하시어, 천축 대뇌음사로 부처님을 찾아뵙고 경을 받으러 갑니다.)

(9) 昭兒道：“二爺打發回來的。林姑老爺是九月初三日巳時沒的。二爺帶了林姑娘同送林姑老爺靈到蘇州，大約趕年底就回來。……”(《紅樓夢·第14回》)
 (소아가 말하였다. “나리께서 보내셔서 왔습니다. 대옥 아가씨 아버님께서 9월 초사흘날 아침 9시에 돌아가셨습니다. 나리께서는 대옥 아가씨를 데리고 대옥 아가씨 아버님 유해를 호송하여 소주로 떠나셨습니다. 아마 연말에나 오시게 될 겁니다……”)

(7)(8)은 차례로 결과보어 ‘見’, 방향보어 ‘來’가 쓰여 동사구 층위에서 [+종결] 특징이 있으며, (9)는 성취동사 ‘沒’가 쓰여 동사층위에서 [+종결] 특징이 있다. 相 매개변수를 기준으로 예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4. 相 매개변수 기준으로 3가지 형식 비교

相	타동성 高		타동성 低	
	[+종결]		[-종결]	
受事가 문두에 위치하는 형식	193개	100%	0개	0%
施事가 문두에 위치하는 형식	81개	89.0%	10개	11.0%
‘是’가 문두에 위치하는 형식	35개	40.2%	52개	59.8%

致使빈어라고 하였다. 結果빈어는 동사의 영향 하에 생성되는 객체이며, 動事, 致使빈어는 이미 존재하는 객체가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고 서술한다. 그러므로 受事빈어를 수반하는 동작은 [+종결]사건이다.

4. 순간성(punctuality)

순간성이란 행위의 돌연성 또는 행위의 기점과 종점의 분명한 過渡가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¹⁹⁾ 그러므로 동작이 시작되자마자 종결되는 동사이므로 ‘在’ 또는 ‘着’와는 결합할 수 없는 동사이다. 각주13) 동사분류표에 의하면 성취동사(Ve)에 속하는 동사이다.

(10) 我想探丫頭雖不是我養的, 老爺既看見過女婿, 定然是好才許的。(《紅樓夢·第98回》)

(탐춘이는 제가 낳지는 않았지만, 대감께서 사위될 사람을 만나보시고 맘에 드셨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11) 那日尸場上, 你說張三是薛蟠將碗砸死的, 你親眼見的麼?(《紅樓夢·第86回》)

(그날 시체가 있는 현장에서, 너는 장삼은 설반이 그릇으로 내리쳐 죽었다고 했는데, 직접 보았느냐?)

(12) 王夫人吃驚道:“我沒有聽見, 老爺昨晚也沒有說起。到底在那裏聽見的?” 鳳姐道:“說是在樞密張老爺家聽見的。”王夫人怔了半天, 那眼淚早流下來了。(《紅樓夢·第96回》)

(왕부인이 놀라며 말했다. “나는 듣지 못했어, 대감께서도 어제 저녁 말씀이 없으셨는데 도대체 어디서 들었는데?” 희봉이 말하였다. “추밀원의 장씨댁에서 들었다고 해요.” 왕부인은 말없이 멍하니 눈물만 흘렸다.)

(10)은 성취동사 ‘養(낳다)’이 쓰인 문장으로 순간적으로 발생한 동작이다. (11)(12)의 동사 ‘砸’, ‘聽’은 성취동사가 아니며 ‘在’ 또는 ‘着’와 결합하는 동사이다. 그러나 보어와 결합²⁰⁾하여 ‘砸死’, ‘聽見’은 ‘在’ 또는 ‘着’와 결합할 수 없는 순간적으로 발생한 동작을 표현한다. 문장의 순간성은 동사의 성질과 관계가 깊지만

19) Hopper & Thompson(1980) 286쪽.

20) 陣平《現代語言學研究 理論·方法与事實》(重慶, 重慶出版社, 1991) 151쪽: 문장의 거의 모든 성분의 어휘의미는 문장 時相구조를 결정하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동사이며 그 다음은 차례로 빈어와 보어, 주어, 기타 문장성분이다.

문장의 기타성분도 고려하여 순간적으로 발생한 동작인지 판단해야 한다.
순간성 매개변수를 기준으로 예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5. 순간성 매개변수 기준으로 3가지 형식 비교

참여자	타동성 高		타동성 低	
	순간성		비순간성	
受事가 문두에 위치하는 형식	75개	38.9%	118개	61.1%
施事가 문두에 위치하는 형식	64개	70.3%	27개	29.7%
‘是’가 문두에 위치하는 형식	25개	28.7%	62개	71.3%

5. 의지성(volitionality)

의지성은 施事が 의지적, 자발적으로 행한 목적성 있는 동작을 의미하며, 施事が 의도적으로 행한 동작이 受事に 주는 영향이 더 분명하다고 서술한다. 또한 의지성이 있는 주체는 반드시 사람이며, 적어도 동물이어야 한다고 하였다.²¹⁾

(13) 賈政道：“胡說！我這官是皇上放的，不給節度做生日，便叫我不做不成！”(《紅樓夢·第99回》)

(가정은 “허튼소리 말아! 내 이 벼슬은 황제께서 친히 내려 주신 거야. 내가 절도사에게 생신선물을 안 보냈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밀려날 것 같으냐!”)

‘放(임명하다)’은 전형적 施事 사람(황제)이 의도성을 갖고 행한 동작이다. 높은 타동성 특징이 있다.

[+자주] 동사는 施事の 의식적 동작행위이기 때문에 王惠(1997)²²⁾는 의지성을 동사의 [+자주] 특징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동사가 [+자주]특성이 있다고 하여도 문장 안에서 施事が 의도적으로 행한 동작이 아니면, 본고는 비의지성의 타동성이 낮은 특징으로 분류한다. (14)(15)는 비의지성으로 분류되는 문장이다.

(14) 黛玉雖躺下，又想到海棠花上：“這塊原是胎裏帶來的，非比尋常之物，來

21) Hopper & Thompson(1980) 264, 286쪽.

22) 王惠(1997) 200-201쪽.

去自有關係。若是這花主好事呢，不該失了這玉呀。……”（《紅樓夢·第95回》）

(대옥은 비록 놓기는 했지만, 또 (때 없이 피어난) 해당화에 생각이 미쳤다. “그 옥은 원래 어머니 배속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으로 보통 옥과는 다르다. 나타나거나 없어지는 것은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일 이 해당화가 좋은 일로 피어난 것이라면 옥을 잃어버릴 까닭이 없지 않겠는가, ……”)

(15) 香菱上來瞧道：怪道這麼好看，原來是孔雀毛織的。（《紅樓夢·第49回》）

(향릉이 다가와 보고서 “그러니 이렇게 예쁘지, 이제 보니 공작 털로 짠 것이네요.”라고 하였다.)

(14)의 동사 ‘帶’는 施事(보옥)가 어머니 배속에서 의도하고 ‘玉’을 가지고 출생한 것이 아니고 운명에 의해 옥을 가지고 출생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帶’는 본래 [+자주] 동사이지만, 이 문장 안에서 施事が 의지적, 자발적으로 행한 목적성 있는 동작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14)에서 ‘帶’는 의지성 동작이라고 할 수 없다. (15)는 施事が 비시지성성분이다.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막연한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施事が 생략된 문장이다. 지시성 施事が 의도적으로 행한 동작보다는 상대적으로 의지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織(짜다)’는 [+자주] 특성의 동사이지만 문장 안에서는 비의지성 동사로 분류한다.

의지성 매개변수를 기준으로 예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6. 의지성 매개변수 기준으로 3가지 형식 비교

의지성	타동성 高		타동성 低	
	의지성		비의지성	
受事が 문두에 위치하는 형식	160개	82.9%	33개	17.1%
施事が 문두에 위치하는 형식	85개	93.4%	6개	6.6%
‘是’가 문두에 위치하는 형식	79개	90.8%	8개	9.2%

6 긍정(affirmation)

긍정은 타동성이 높은 특징이고 부정은 타동성이 낮은 특징이라고 하였다.²³⁾ 본

23) Hopper & Thompson(1980) 252쪽 참조.

고는 문장의 의미가 긍정도 부정도 아니거나, 긍정과 부정을 분명히 구분할 수 없는 문장은 긍정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낮은 타동성 특징으로 분류한다.

(16) 八戒喝道：“汝等不知，這榜不是我揭的，是我師兄孫悟空揭的。他暗暗揣在我懷中，他却丟下我去了。若得此事明白，我与你尋他去。”(《西遊記·第68回》)

(팔계가 소리 지르며 “너희는 모른다, 이 방문은 내가 뎀 것이 아니라 우리 사형 손오공이 떴었다. 나 몰래 내 품 속에 집어넣고 나를 내버려두고 가버린 것이다. 이 일을 분명히 알고자 한다면 나와 함께 그를 찾아가 보자.”라고 하였다.)

(17) 行者道：“我不會敢打，我問師父，你這法兒是誰教你的？”(《西遊記·第14回》)

(손행자는 “저는 감히 때리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사부님 말씀해주십시오. 누가 사부님께 그 술법을 가르쳐드린 겁니까?”)

(16)은 부정으로 낮은 타동성 특징을 갖는 문장이다. (17)은 ‘這法兒’를 가르친 사람이 누구인지 묻고 있기 때문에 긍정도 부정도 아니며, 낮은 타동성 특징으로 분류된다.

긍정성 매개변수를 기준으로 예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7. 긍정성 매개변수 기준으로 3가지 형식 비교

긍정	타동성 高		타동성 低	
	긍정		부정	
受事가 문두에 위치하는 형식	137개	71.0%	56개	29.0%
施事가 문두에 위치하는 형식	59개	64.8%	32개	35.2%
‘是’가 문두에 위치하는 형식	73개	83.9%	14개	16.1%

7. 서법(Mode)

서법은 현실과 비현실의 구분이다. 발생하지 않았거나 비현실 세계에서 발생한 동작은 현실세계에서 발생한 동작보다 영향력이 약하다고 서술 한다.²⁴⁾ 현실적 서

24) Hopper & Thompson(1980) 252쪽.

법은 진술문을 의미하며 의문, 가정, 조건, 명령문은 비현실적 서법에 속한다.

(18) 半月光景，忽又裝起病來，只說心疼難忍，四肢不能轉動。請醫療治不效，衆人都說是香菱氣的。(《紅樓夢·第80回》)

(반달쯤 지나, 갑자기 또 아픈척하며 가슴이 아파 건디기 어렵고, 사지를 움직일 수 없다고 했다. 의원을 청해 보았지만 효과가 없었다. 사람들은 향룽이가 애를 태워서 저렇게 되었다고 하였다.)

(19) 那怪道：“你這猴子，我記得你鬧天宮時，家住在東勝神州傲來國花果山水帘洞裏，到如今久不聞名，你怎麼來到這裏上門子欺我？莫敢是我丈人去那裏請你來的？”(《西遊記·第19回》)

(그 요괴가 말하였다. “너 이 원숭이! 내가 천궁을 뒤엎었을 때, 동승신주 오래국 화과산 수렴동에 살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지금까지 이름을 듣지 못했는데, 왜 여기에 와서 나를 못살게 구는 거냐? 설마 내 장인이 그곳으로 가서 모셔온 것은 아닐 테지?”)

(20) 對衆女說：“等我去問他。不是唐朝的便罷；若是唐朝來的，就教換茶，你却將此茶令童兒拿出。但吃了，個個身亡，就与你報了此仇，解了煩惱也。”七女感激不盡。(《西遊記·第73回》)

(여자들에게 “내가 가서 그들에게 물어 보아, 당나라에서 오지 않았다면 그만두고, 당나라에서 왔다면 차를 바꾸라고 할 테니 너희는 동자를 시켜 이 차를 가지고 나가게 하여라. 마시게 되면 모두 죽을 것이니 너희의 원수를 갚고 걱정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일곱 여자들은 감격해 마지않았다.)

진술문(18)의 타동성 특징은 반어문(19), 가정문(20) 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서법 매개변수를 기준으로 예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8. 서법 매개변수 기준으로 3가지 형식 비교

서법	타동성 高		타동성 低	
	현실		비현실	
受事가 문두에 위치하는 형식	187개	96.9%	6개	3.1%
施事가 문두에 위치하는 형식	91개	100%	0개	0%
'是'가 문두에 위치하는 형식	83개	95.4%	4개	4.6%

8. 施事性(agency)

施事性은 施事의 특징이며, 계획적으로 행위동작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전형적 施事인 사람 또는 동물의 施事性이 높다. 施事性이 높아야 효과적으로 동작을 다른 참여자에게 전달 할 수 있다.

施事性과 의지성 두 매개변수는 모두 의도적으로 행위동작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하지만 서로 다른 개념이다. 施事性은 施事의 특징이며 의지성은 동사의 특징이다. 높은 施事性은 사람 또는 동물의 전형적 施事라는 조건만 만족시키면 되고 동사의 조건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지성 동작은 높은 施事性 施事와 의지와 목적성을 가지고 행하는 행위동작 동사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21) 薛寶釵因往日母親對王夫人等曾提過 “金鎖是個和尚給的，等日後有玉的方可結爲婚姻”等語，所以總遠着寶玉。(《紅樓夢·第28回》)

(설보치는 예전에 어머니가 왕부인 등에게 “금 자물쇠는 어떤 스님이 주었고, 장래에玉石이 있는 사람이야 혼인이 성사 된다”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늘 보옥을 멀리하였다.)

(22) 你與張三到底有甚麼仇隙? 畢竟是如何死的? 實供上來! (《紅樓夢·第86回》)

(너와 장삼은 도대체 무슨 원한이 있느냐? 결국 어떻게 죽었느냐? 사실대로 자백 하여라!)

(21)(22) 전형적 施事 사람(스님, 張三)이 행한 동작이므로 이 문장은 施事性이 높다. 그러나 (22)는 施事性이 높은 문장이지만 의지성 동작이 아니다. 이 문장은 전형적 施事는 있지만 ‘死’는 施事가 의지와 목적성을 갖고 행한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비의지성이 동작으로 분류한다.

施事性 매개변수를 기준으로 예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9. 施事性 매개변수 기준으로 3가지 형식 비교

施事性	타동성 高		타동성 低	
	高	低	高	低
受事が 문두에 위치하는 형식	163개	84.5%	30개	15.5%
施事が 문두에 위치하는 형식	91개	100%	0개	0%
'是'가 문두에 위치하는 형식	85개	97.7%	2개	2.3%

9. 빈어가 영향을 받는 정도

빈어가 영향을 받는 정도는 빈어가 동사의 영향을 완전히 받는가, 부분적으로 받는가, 영향을 받지 않는가를 의미 한다. 빈어가 동사의 영향을 받는 정도가 클수록 동작의 강도가 크며 문장의 타동성도 높다. 빈어가 완전히 영향을 받으면 높은 타동성이 있는 것이고 빈어가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받지 않으면 낮은 타동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²⁵⁾

빈어가 완전히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동사의 영향으로 빈어의 변화²⁶⁾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I drank up the milk.(我喝完了牛奶。)'와 'I drank some of the milk.(我喝了一些牛奶。)'에서 전자의 빈어는 동사의 영향을 완전히 받는 문장이다. 일정 양의 우유를 모두 마셔 우유는 남아 있지 않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후자는 빈어가 동사의 영향을 부분적으로 받는 문장이다. 일정 양의 우유를 마시고 일정 양의 우유는 남아 있다. 빈어가 동사의 영향을 완전하게 받는 전자의 타동성이 후자보다 높다.

(23) 那日尸場上, 你說張三是薛蟠將碗砸死的, 你親眼見的麼? (《紅樓夢·第86回》)

(그날 시체가 있는 현장에서, 너는 장삼은 설반이 그릇으로 내리쳐 죽었다고 했는데, 직접 보았느냐?)

(24) 這陣風, 原來就是那棹船人弄的, 他本是黑水河中怪物。 (《西遊記·第43回》)

(이 바람은 알고 보니 그 뱃사공의 농간이었는데, 그는 본래 흑수하에 사는 괴

25) Hopper & Thompson(1980) 252-253쪽.

26) 王惠(1997) 222쪽.

물이었다.)

(25) 這位兄弟便是引小弟兩個見大官人的，喚做鬼臉兒杜興。《《水滸傳·第48回》》

(이 분이 바로 저희 둘을 데리고 대관인을 뵈게 하였고, 귀검아 두홍이라 부릅니다.)

(26) 護庇護庇罷，只說芹哥兒是在家裏找了來的。你帶了他去，只說沒有見我。《《紅樓夢·第93回》》

(좀 감싸 주세요, 芹오빠를 집에서 찾아 왔다고만 말하세요. 오빠를 데리고 가시고, 저는 보지 못했다고만 말해 주세요.)

(23)(24)의 빈어는 동사의 영향으로 빈어의 변화가 발생한 타동성이 높은 문장이다. (23)동사 ‘砸(내리치다)’의 결과, 빈어 張三이 죽었으며(死), (24)동사 弄(만들다)의 결과, 빈어 바람(風)²⁷⁾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無에서 有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5)빈어 ‘大官人’은 동사 ‘見(만나다)’의 대상이며, (26)빈어 ‘芹哥兒’ 역시 동사 ‘找(찾다)’의 대상이다. (25)(26)은 동작의 결과, 빈어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빈어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빈어가 영향을 받는 정도’ 매개변수를 기준으로 예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10. ‘빈어가 영향을 받는 정도’ 매개변수 기준으로 3가지 형식 비교

빈어가 영향을 받는 정도	타동성 高		타동성 低	
	완전히 영향 받음		영향 받지 않음	
受事가 문두에 위치하는 형식	127개	65.8%	66개	34.2%
施事가 문두에 위치하는 형식	12개	13.2%	79개	86.8%
‘是’가 문두에 위치하는 형식	10개	11.5%	77개	88.5%

10. 빈어의 개체화

빈어의 개체성은 빈어가 언어 환경 중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구체적, 형상적, 有

27) 張雲秋 (2005)가 분류한 전형적 受事빈어이다.

界的인 어떤 실체를 의미한다. 王惠(1997)에서는 Hopper & Thompson (1980)²⁸⁾을 근거로 하여 중국어에서 [+지시(有指: referential)]²⁹⁾, [+한정(有定: identifiable)]³⁰⁾ 이면 개체성이 높다고 하였다.

그리고 李訥 등(1998)³¹⁾에서 중국어 명사성분의 개체성 등급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비한정성분(inidentifiable) > 한정성분(identifiable) > 비지시성분(nonreferential)

[+지시], [+한정]의 특징이 있으면 개체성이 높다고 한 王惠(1997)의 기준에 의하면, 李訥 등(1998)의 개체성 등급에서 비한정성분은 한정성분보다 개체성이 더 높기 때문에 역시 개체성이 높다. 그러므로 본고는 [+지시]³²⁾이면 개체성이 높고

28) Hopper & Thompson(1980) 253쪽 참조: 아래 표에서 왼쪽 성분은 오른쪽보다 개체성이 높다고 하였다.

개체성 성분	비개체성 성분
고유(proper)명사	보통명사(common)명사
有生(human, animate)명사	無生명사(inanimate)명사
구체적(concrete)명사	추상명사(abstract)명사
단수(singular)명사	복수명사(plural)명사
可數(count)명사	不可數(mass)명사
지시, 한정(referential, definite)성분	비지시(non-referential)성분

王惠(1997)는 상술한 표에서 [+有生]의 특징은 중국어에서 동사가 빈어에 대한 요구가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개체성을 판단하는 기준에서 제외하였다.

29) Li & Thompson 박정구 등 編 《표준중국어문법》 한울아카데미 2009, 141쪽 참조: 문장 또는 담화에서 표현(詞語: expression)은 지시적인 경우와, 비지시적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화자가 어떤 표현을 했을 때, 그 표현이 실체(entity)를 의미할 경우 그것은 지시적이다. 이러한 실체는 물질적인 것 혹은 개념적인 것일 수도 있고 사실적인 것 혹은 가정적인 것일 수도 있으며 단수 혹은 복수일 수도 있다. 반대로 그 표현이 어떠한 실체도 지칭하지 않는다면 비지시적 표현이다.

30) 陳平 〈釋漢語中与名詞性成分相關的四組概念〉: 《中國語文》1987年 第2期, 111쪽: 한정, 비한정적의 개념은 명사성분이 어떤 대상을 지시할 수 있는 지시적 의미를 갖는 것이 전제되고 한정과 비한정 구별의 핵심은 화자의 판단이다. 즉 청자가 그 지시대상을 담화 세계에서 구별해 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31) 李訥·安珊笛·張伯江 〈從話語角度論證語氣詞“的”〉: 《中國語文》1998年 第2期, 97쪽 참조.

32) 선행연구(여숙상(1965), 王還(1985), 張伯江(2000) 등)에 의하면 把자문의 빈어는

[-지시]는 개체성이 낮다고 분류한다.

《수호전》, 《서유기》, 《홍루몽》에서 표현된 과거의미 是……的형식 중 A형식 총 193개 중 빈어가 생략된 형식 32개를 제외한 161개(83.4%), B형식 총91개 중 빈어를 취하는 문장 18개(19.6%), C형식 총87개 중 빈어를 취하는 문장 29개(45.3%)이며 그 형식과 개수는 다음과 같다.

표11. 빈어형식과 개수

형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합계 (개)
A	86	22	20	14	10	5	2	1	1	161
B		9	1	6	1	1				18
C	2	12		15	2				1	29

(표11에서 숫자는 다음을 의미 한다: ①這/那 + (양사)+명사 ②단독명사 ③소속성 한정어+명사 ④인칭대사 ⑤고유명사 ⑥묘사성 한정어+명사 ⑦동사 ⑧주술구 ⑨의문대사)

표11에서 단독명사는 [±지시] 특징의 형식이며, 동사, 주술구, 의문대사 3가지 형식은 陳平(1987)³³⁾이 분류한 명사성분의 형식은 아니지만 본고의 예문분석 과정에서 볼 수 있었던 형식이다. 단독명사와 동사, 주술구, 의문대사를 제외하고 기타의 형식은 [+지시]로 개체성이 높다. 다음은 본고 예문 중에 표현된 단독명사와 동사, 주술구, 의문대사의 개체성 高低를 관찰한다.

1) 단독명사

(27) 沙僧接了抱着的散經，打開看時，原來雪白，并無半點字迹，慌忙遞与藏

대부분 [+지시]라고 하였다. 把자문은 타동성이 높고 그 빈어 역시 개체성이 높다. 그러므로 [+지시]이면 개체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33) 陳平(1987) 114-119쪽 참조:

중국어 명사성분의 어휘형식을 7가지로 분류하고 각 형식의 [±지시], [±한정]의 특징을 서술하였다: A. 인칭대사 B. 고유명사 C. 這/那 + (양사)+ 명사 D. 단독명사(光杆名詞) E. 수사 + (양사)+ 명사 F. — + (양사) + 명사 G. 양사+명사. 이 중 D, E, F, G는 [±지시]형식이며 이 4가지 형식이 [+지시]일 때 D, E는[±한정], F, G는 [-한정]의 형식이라고 서술한다. 또한 표11에서 ③‘소속성 한정어+명사’, ⑥‘묘사성 한정어+명사’형식은 陳平(1987)의 명사성분 어휘형식에는 없으나 李訥 등(1998)에서 [+한정]형식으로 분류하여 본고도 이를 인용하였다.

道：“師父，這一卷沒字。”……“師父，不消說了，這就是阿儺、伽叶那廝，問我要人事沒有，故將此白紙本子與我們來了。快回去告在如來之前，問他才肯財作弊之罪。”……不多時，到於山門之外，衆皆拱手相迎，笑道：“聖僧是換經來的？”三藏點頭稱謝。衆金剛也不阻擋，讓他進去……（《西遊記·第98回》）

（사화승은 안고 있는 흠어진 경전을 받아서 펼쳐보니 눈과 같이 하얗고 조금의 글자의 흔적도 없었다. 당황하여 급히 삼장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스승님, 이 책에는 글자가 없습니다.”…… “스승님, 말이 필요 없어요, 이것은 아난과 가섭 그 놈들이 선물을 가져왔느냐고 물었을 때 없다고 했더니, 고의로 이런 백지 책을 넘겨준 것입니다. 빨리 돌아가서 여래님께 알려요. 그 놈들이 뇌물을 강요하고 농간 부린 죄를 따져 물어야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서 산문 밖에 다다르니 많은 사람이 두 손을 모으고 맞아들이고, 웃으며 말하기를 “성승께서는 경을 바꾸러 오셨습니까?” 삼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인사를 했다. 금강들도 그들을 가로 막지 않고 들여보내주었다……)

(28) 大衆道：“悟空，你是那世修來的緣法？前日老師父附耳低言，傳與你的躲三災變化之法，可都會麼？”悟空笑道：“不瞞諸兄長說，一則是師父傳授，二來也是我晝夜殷勤，那幾般兒都會了。”（《西遊記·第2回》）

（사형들이 말하였다. “오공, 자네는 어느 생에 연법을 수련하였는가? 지난번 사부님께서 귓속말로 삼재를 모면할 수 있는 변화술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모두 할 수 있나?” 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솔직히 형님들께 말하면, 사부님께서 가르쳐주시고, 나 또한 불철주야로 공부한 덕분에 어지간한 것은 모두 할 수 있게 되었어요.”)

(27) 경전(經)은 앞 문장의 사화승이 받은 경전을 회지(回指 : anaphoric reference)하기 때문에 [+지시]로 개체성이 높다. (28) ‘緣法’은 담화 중의 어떤 것을 지시하지 않는 [-지시] 성분으로 개체성이 낮다.

분석결과 단독명사의 지시성은 A형식 22개의 단독명사는 모두 [+지시]이며, B형식 9개 단독명사 중 6개가 [+지시]이며, C형식 12개의 단독명사 중 5개가 [+지시]이다.

2) 동사, 주술구

(29) 無人處只和尤二姐說：“妹妹的聲名很不好聽，連老太太、太太們都知道了，說妹妹在家做女孩兒就不干淨，又和姐夫有些首尾，‘沒人要的了你揀了來，

還不休了再尋好的。‘我聽見這話，氣得倒仰，查是誰說的，又查不出來。……’
 (《紅樓夢·第69回》)

(겉에 아무도 없을 때는 우이에게 말했다. “동생의 평판이 안 좋아, 할머님, 어머니들까지도 아시고 계셔, 동생이 처녀 적부터 품행이 안 좋았고 또 형부와 이상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 네가 데려 왔는데, 왜 내 보내고 좋은 사람을 찾지 않느냐?’ 는 말을 듣고 나는 얼마나 분했는지 몰라. 누가 말했는지 조사해도 알아낼 수도 없고……”)

(30) “…… 我又飛刀砍去，他又把刀接了，摔下滿堂紅，把我後 腿上着了一下，故此黏在御水河，逃得性命。腿上青是他滿堂紅打的。”(《西遊記·第30回》)

(내가 또 칼을 날려 베려 했는데 그 놈은 또 칼을 받아내더니 촛대를 나에게 던져 나는 허벅지에 부상을 입은 채 어수하 속으로 뛰어들어 목숨을 건지게 된 거예요. 허벅지가 멍든 것은 그 놈이 촛대로 때렸기 때문이에요.)

동사 ‘查’, 주술구 ‘腿上青’은 모두 명사성분은 아니지만 문장 표현의 지시성은 판단할 수 있다.³⁴⁾ 문맥을 통해 차례로 누가 말했는지 조사하는 일, 화자의 다리가 멍이 든 일을 표현하기 때문에 모두 [+지시]임을 알 수 있다.

3) 의문대사

(31) 李嬷嬷聽了這話，益發氣起來了，說道：“你只護着那起狐狸精，那裏認得我了，叫我問誰去？誰不幫着你呢，誰不是襲人拿下馬來的！我都知道那些事。”(《紅樓夢·第20回》)

(李유모는 이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나서 “도련님은 저 여우의 편만 드시지 어디 내가 안중에 있으시겠어요? 저더러 누구에게 물어 보라는 겁니까? 누가 도련님 편을 들지 않겠어요, 어느 누가 습인에게 고삐를 잡히지 않았겠어요? 난 다 알아요.)

‘誰’는 범칭지시(泛指:generic)이기 때문에 [+지시]³⁵⁾이고 개체성이 높다고 할

34) 徐烈炯《語義學》(北京, 語文出版社, 1995), 6쪽: 문장 또는 담화에서 표현(詞語: expression)은 지시적인 경우와, 비지시적인 경우로 나눌 수 있고, 표현은 단어(word), 구(phrase)의 총칭이며 때로는 문장(sentence)이 포함되기도 한다고 서술한다.

수 있다.

‘빈어의 개체성’ 매개변수를 기준으로 예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12. ‘빈어의 개체성’ 매개변수 기준으로 3가지 형식 비교

빈어의 개체성	타동성 高		타동성 低	
	[+지시]		[-지시]	
受事가 문두에 위치하는 형식	193개 ³⁶⁾	100%	0개	0%
施事가 문두에 위치하는 형식	15개	16.5%	76개	83.5%
‘是’가 문두에 위치하는 형식	24개	27.6%	63개	72.4%

IV. 근대중국어 과거의미 是……的 3가지 형식 타동성高低 비교

높은 타동성 특징이 나타나는 평균비율이 78% 이상이면 그 형식의 타동성이 높고, 39% 이하이면 타동성이 낮다고 하였다. 과거의미 是……的 3가지 형식의 타동성高低를 비교하기 위해 3가지 형식의 높은 타동성 특징이 나타나는 평균비율을 계산하였다. 계산방법³⁷⁾은 다음과 같다. 10가지 타동성 측정매개변수를 기준으로 총 371개의 예문 하나하나를 분석하여 매 하나의 매개변수마다 높은 타동성 특징이 나타나는 예문의 비율(%)을 계산 한 후, 10개 매개변수 전체의 높은 타동성 특징이 나타나는 평균비율을 계산하였다. 예를 들면, C 형식의 예문 총87개 중 참여자가 2개인 예문 29개(33.3%), 동태동사가 쓰인 예문 87개(100%),……빈어의 개체성이 높은 예문 24개(27.6%)를 모두 더하여 높은 타동성 특징을 갖는 평균비율 $((33.3\%+100\%+\dots+27.6\%)\div 10=62.9\%)$ 을 계산하였다.

다음 표는 근대중국어 과거의미 是……的 3가지 형식의 높은 타동성 특징을 종합

35) 徐烈炯(1995), 256-257쪽: 범칭지시(泛指:generic)의 명사성분은 전체 집합을 지시하기 때문에 지시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36) A 형식에서 빈어가 생략된 문장(32개)은 문장의 연결을 위해 빈어를 생략한 것으로, 생략된 빈어의 [+지시]를 분명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된 32개를 [+지시]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B와 C 형식의 생략된 빈어는 그 지시성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없으므로 [-지시]로 분류하였다.

37) 계산 방법 Hopper & Thompson(1980) 288쪽 참고.

비교하였다.

표13. 근대중국어 과거의미 是……的 3가지 형식의 높은 타동성 특징 종합 비교

높은 타동성 특징	受事가 문두에 위치하는 형식	施事가 문두에 위치하는 형식	‘是’가 문두에 위치하는 형식
참여자 2개	163개(84.5%)	16개(17.6%)	29개(33.3%)
동태	193개(100%)	91개(100%)	87개(100%)
[+종결]	193개(100%)	81개(89.0%)	35개(59.8%)
순간성	75개(38.9%)	64개(70.3%)	25개(28.7%)
의지성	160개(82.9%)	85개(93.4%)	79개(90.8%)
긍정	137개(71.0%)	59개(64.8%)	73개(83.9%)
현실	187개(96.9%)	91개(100%)	83개(95.4%)
施事性 高	163개(84.5%)	91개(100%)	85개(97.7%)
빈어가 완전히 영향 받음	127개(65.8%)	12개(13.2%)	10개(11.5%)
빈어 개체성 高	193개(100%)	15개(83.5%)	24개(27.6%)
합계(평균)	1,591개(82.5%)	605개(66.5%)	530개(62.9%)

표13에서 높은 타동성 특징의 평균비율이 A 형식은 82.5%, B 형식은 66.5%, C 형식은 62.9%이다. 이와 같이 3가지 형식의 타동성高低가 각기 다른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타동성은 문장전체의 특징이기 때문에 타동성高低가 각기 다르다는 것은 3가지 형식의 문장의미와 어법특징이 다르다는 의미이다.

문장에서 높은 타동성 특징이 나타나는 평균비율이 78% 이상이면 타동성이 높고, 39% 이하이면 낮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중등정도의 타동성은 $58.5\%((78\% + 39\%) \div 2)$ 라고 할 수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A 형식은 타동성이 높고, B 형식과 C 형식은 중등정도의 타동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타동성이 높은 A 형식은 담화에서 전경부분에 표현되고 타동성이 중등정도 즉 타동성이 높지 않은 B 형식과 C 형식은 담화에서 주로 배경부분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V. 결 론

근대중국어 과거의미 是……的 3가지 형식의 타동성高低 분석을 통해, 3가지 형식의 타동성高低가 서로 다른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10가지 타동성 측정 매개 변수는 의미, 통사와 관련된 성분이기 때문에 타동성이 다르다는 것은 문장이 표현 하는 의미, 구조, 기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A 형식은 타동성이 높기 때문에 담화의 골격이 되며 담화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전경부분을 표현한다. B와C 형식은 타동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배경부분을 표현한다. 배경문장이 되어 사건발전의 시간적 연관성과는 관계없이 관련 전경부분을 참조점으로 하여 전경문장의 장면과 세부사항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선행 연구³⁸⁾에서 이 3가지 형식은 동일한 구조의 문장이며 단지 초점 표지사 '是'로 서로 다른 초점을 표현한다고 서술한 내용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또한 배경부분은 時相표지가 쓰이지 않기 때문에, 배경부분에 표현되는 B와 C 형식에서 '的'는 時相표지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³⁹⁾ 그러나 A 형식은 타동성이 높아 주로 전경부분에 표현되는데 이때의 '的'는 과거의미를 표현하는 時相표지로 볼 수 있는 것일까?

A 형식의 과거의미는 동사 또는 통사층위의 [+종결] 특징과 미래가 아닌 시간제한에 의해 인지적으로 부여되는 것이라고 한다. B 형식은 '的'가 문장에 [+종결]의 특징을 부가하고 미래가 아닌 시제에서 인지적으로 과거의미를 표현하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C 형식은 미래시제와 함께 쓰이지 않고, 동사 또는 통사층위에서 [+종결]특징이 없어도 항상 과거의미를 표현하기 때문에 C 형식의 과거의미는 형식이 부여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A 형식의 과거의미는 동사의 특징이나 통사적 관계에 의해 표현되고, B 형식의 과거의미는 동사의 특징이나 통사적 관계에 의해 표현되지는 않지만 과거의미를 표현하는 하나의 형식으로 문법화가 진행된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 C 형식의 과거의미는 형식이 부여하는 것으로 과거의미를 표현하는 하나의 형식으로 문법화 되었다고 서술 한다.⁴⁰⁾ 이것은 C 형식의 '的'는 A, B 형식의

38) 袁毓林 〈從焦點理論看句尾“的”的句法語義功能〉:《中國語文》2003年 第1期 6쪽

39) '的'와 어기조사와의 관련성은 본 논문에서는 논하지 않고 차후 연구과제로 남기겠다. 본 논문은 '的'가 時相표지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로 범위를 제한하여 서술한다.

‘的’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문법화가 진행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법화는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문법화가 많이 진행된 성분이 時相표지를 담당하기 때문에 C형식의 ‘的’보다 상대적으로 문법화가 진행되지 않은 A형식의 ‘的’가 時相표지일 수 없다고 추론된다. A형식의 과거의미는 상술한 바와 같이 동사의 특징이나 통사적 관계 그리고 미래가 아닌 시간제한에 의해 인지적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時相표지가 아니다.

김선희(2015)는 ‘的’가 ‘了’와 같은 有界化 기능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과거의미 是……的 3가지 형식이 과거의미를 표현하게 되는 원인을 서술하였다. 즉 ‘的’는 구조조사로 서술한다. 본고는 동사가 주어로 품사활용 된다고 하여 품사가 명사로 바뀌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이 是……的형식의 ‘的’가 과거의미를 표현하는 것은 ‘的’의 어법성질이 변한 것이 아니고 단지 화용적기능이라고 판단한다.

과거의미 是……的형식에서 ‘的’가 時相표지인지 아닌지에 대한 학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본고는 광의의 타동성이론을 근거로 하여 근대중국어 과거의미 是……的 3가지 형식의 타동성高低를 분석하여 ‘的’가 時相표지가 아니라는 것을 서술하였다. 본고의 새로운 시도가 ‘的’의 성질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

【參考文獻】

- 曹雪芹 著《綉像全本紅樓夢·珍藏本》南昌, 百花洲文藝出版社, 2010.
 陳平〈釋漢語中與名詞性成分相關的四組概念〉;《中國語文》1987年 第2期.
 陣平《現代語言學研究 理論·方法与事實》重慶, 重慶出版社, 1991.
 李訥·安珊笛·張伯江〈從話語角度論證語氣詞“的”〉;《中國語文》1998年 第2期.
 吳承恩《綉像全本西游記·珍藏本》南昌, 百花洲文藝出版社 2010.
 屈承熹〈漢語功能語法當議〉;《世界漢語教學》1998年 第4期.
 沈家煊〈有界與無界〉《著名中年語言學家自選集·沈家煊卷》合肥, 安徽教育出版社 2002.
 施耐庵《綉像全本水湖傳·珍藏本》南昌, 百花洲文藝出版社 2010.
 唐翠菊〈從及物性角度看漢語無 定主語句〉;《語言教學與研究》2008年 第3期.

40) 김선희(2015)

- 王惠 〈從及物性系統看現代漢語的句式〉《語言學論叢·第19輯》北京, 商務印書館, 1997.
- 徐烈炯《語義學》北京, 語文出版社, 1995.
- 袁毓林 〈從焦點理論看句尾“的”的句法語義功能〉;《中國語文》2003年 第1期.
- 張雲秋 〈動詞對受事賓語典型性强弱的制約〉;《學習漢語》2005年 第3期.
- 김선희 〈명대 是……의 형식 과거의미 분석 - 수호전, 서유기 중심으로〉;《중국어언문학논집》제91호, 2015.4.
- Li & Thompson 박정구 등 編《표준중국어문법》한울아카데미 2009.
- Paul J. Hopper and Sandra A. Thompson Transitivity in grammar and discourse[J] Language Vol. 56, No. 2, 1980.
- Smith, C. S. *The Parameter of Aspect*(Second Edition) Dordrecht Boston Lond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7.

【中文提要】

根據Hopper & Thompson (1980)所提出的‘廣義及物性理論’, 背景性(grounding)与及物性(transitivity)有緊密的聯系。有一種傾向及物性高的特徵出現在前景部分, 及物性低的特徵出現在背景部分。該文同時還提出了能分析出及物性高低的10個參數。爲了使前景信息焦點化而產生了時相範疇, 這是跨語言的現象。帶時相標記的句子可以說是前景化了的句子, 也可以說是及物性高的句子。而背景句不能帶時相標記, 它与事件發展的時間性沒有聯系, 只是以相關的前景句爲參照點給前景句提供場面和詳細情況。

因爲背景性与及物性有緊密聯系, 我們認爲如果能把表‘過去’義的‘是……的’句的及物性高低分析出來, 就可以說明在這個構式中與表‘過去’義有關的‘的’的性質。本文先把371個近代漢語中表‘過去’意義的‘是……的’句分爲3種形式: 受事位於句首的形式(A)、施事位於句首的形式(B)、“是”位於句首的形式(C), 再以10個及物性參數爲依據分析了3種形式的及物性高低, 從而得出了下列結果: 第一, 3種形式的及物性高低都不同, 這意味着3種形式的語義-句法都不同, 先行研究中認爲這3種形式的結構一樣, 只是通過焦點標記‘是’的位置來體現其不同的焦點而已。但是這3種形式及物性稱度不同, 所以句子結構

也應不同。第二，A形式的及物性高，出現於前景部分，而B、C形式的及物性不高，出現於背景部分。因C形式已語法化爲表示過去義的句式，而‘的’的虛化程度相對來說較高。但A形式並未語法化爲表過去義的句式，而‘的’的語法化程度也較低。因出現於背景部分的C形式不能帶時相標記，在這種形式中‘的’就不能成爲時相標記。語法化程度相對較低的A形式中的‘的’則更無法成爲時相標記。

【主題語】

타동성, 배경성, 타동성 매개변수, 과거의미 是……的형식, 時相표지
及物性、背景性、及物性參數、表‘過去’意義的‘是……的’句、時相標記
transitivity, grounding, transitivity parameter, the past tense “shi……de”
Sentence Structure, tense and aspect marker

투고일: 2015. 7. 15 / 심사일: 2015. 7. 20~8. 5 / 게재확정일: 2015. 8. 10
